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체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최우진\*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상공인의 사업 체험을 탐구하고 각 체험에 내재된 공통된 요소를 도출하여 코로나19 나아가 팬데믹이 갖는 경제적, 사업적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통된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현상의 보편적인 본질을 기술하는 연구방법인 현상학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업유형, 사업채널, 업종,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한 6명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에 집중하고 진술문의 빈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Van Kaam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주도적 대응이 우선되고 팬데믹 발생 전후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환적인 환경이며 소상공인들의 사업적 변화가 요구되는 현상으로 체험되었다. 또한 연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기감지 및 초기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언론 협조, 즉각적 경제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 대중안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마련,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의 차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팬데믹의 사업적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반복이 예상되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코로나19, 팬데믹, 소상공인정책, 현상학, Van Kaam

\* <비즈컴퍼스> 대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mr-yo@hanmail.ne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siness Experi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in Corona 19 pandemic

Choi, Woo J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business experi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Corona19 situation and to identify the economic and business nature of the pandemics by deriving the common elements inherent in each experience. To this en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attempted to describe the universal nature of the phenomenon based on the experiences of several individuals on common phenomena. Specifically, six small business owner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ir type of business, business channel, industry, and business purpose, and Van Kaam's analysis method was applied for focus on the common attributes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to identify the frequency and priority of statem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pandemics such as Corona 19 were experienced as a phenomenon requiring a national-level leading response, a transition environment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pandemics, and a business change of small business owners. Also, in terms of policy, It was analy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ystem for early detection and press cooperation for initial preventio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mediate economic support, communication channels for public stabil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support policies considering business characteristics are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tries to identify the business nature of Panpandemics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present effective small business policy directions for the pandemics situation that is expected to be repeated in the future.

Key words : Corona19, pandemics, Small Business Policy, Phenomenology, Van Kaam

---

\* CEO, *Bizcompass*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mr-yo@hanmail.net

## I. 서론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후 세계적으로 2020년 6월 30일 9시 기준으로 10,199,794명의 감염자와 503,457명의 사망자를 발생<sup>1)</sup>시킨 코로나19는 자본주의의 변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전 지구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폐해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 방위적이며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의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일 각 분야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체감도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엄중한 상황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각종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코로나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장인석, 2020).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 특히 고통 받고있는 계층은 국내의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이 3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에 이르고 있고 연일 휴업·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 중인 관계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학계에서는 수치적인 피해산정과 향후 추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코로나19 나아가 팬데믹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본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본질에 대해서 기술하는 현상학 연구방법(Creswell, 2007)을 적용하여 코로나19라는 공통적인 상황에 대한 소상공인 각자의 사업 체험을 탐구하고 각 체험에 내재된 공통된 요소를 도출하여 코로나19 나아가 팬데믹의 본질<sup>2)</sup>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이해, 코로나19의 국내외 피해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향 및 정부대응, 현상학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조사를 수행하고 6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상학 연구를 진행하여 소상공인에 있어서 코로나19가 갖는 사업적 본질의 기술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팬데믹의 사업적인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정책과 관련하여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도출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1) COVID-19사이트: <http://ncov.mohw.go.kr>

2) 본고에서 연구되는 팬데믹의 본질은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이해 또는 인식되는 팬데믹의 사업적 의미를 의미함

## II. 이론 리뷰

### 1.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이해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서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이며 현재까지는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4~7일에서 최대 2주까지 잠복할 수 있고 전 세계적 통계에 근거한 치명률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4.9% 수준이나 고령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의 환자는 중증, 사망에 이를 수 있다(COVID-19 사이트).

팬데믹이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6단계 즉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감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 3단계는 사람 간 감염증가, 4단계는 사람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유행병 발생초기 단계, 5단계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최소 2개국 이상에서 유행, 6단계는 다른 대륙의 국가까지 추가 감염 되는 감염병 유행 상황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사례는 홍콩독감(H3N2 Virus, 1968년)과 신종플루(H1N1, 2009년) 2차례이며 코로나19가 3번째로 2020년 3월13일에 팬데믹으로 공식선언 되었다(신유원 등, 2020). 세계보건기구(WTO)의 팬데믹 선언은 보건방침이나 법적의무가 아닌 각국의 대응강화와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상징적 조치일 뿐이나 이는 사실상 최고단계의 감염상황을 공식화하는 것이므로 팬데믹의 발생 시에는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보다는 현실적으로 각 국가에서 자국 내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활동의 제한, 공공장소 폐쇄, 국경봉쇄, 국제교역 축소 등 예외적인 격리조치를 단행 한다(최나실, 2020).

이러한 각국의 격리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과 무역거래를 위축시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을 초래하며 실제 팬데믹 상황마다 생산과 소비의 침체, 관광 등 산업위기, 자산시장의 변동 등이 발생해 왔다(박성원·김유빈, 2020). 코로나 19의 경우 역시 장기화가 진행 될 경우 국내경기가 단계적으로 내수 침체, 수출 감소, 대량 실업, 가계 파산, 기업 소멸 순의 전체 경기침체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주원, 2020).

특히 내수경제의 일선에 자리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침체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피해, 대응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2. 코로나19의 국내외 피해 현황

코로나19의 국내발생 현황은 2020년 6월 30일 00시 기준으로 확진환자 12,800명, 격리해제 11,537명, 격리 중 981명, 사망 282명으로 치명률은 2.4% 수준이며 코로나19의 감염은 지속 중인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를 살펴보면 경제심리지수가 2020년 1월 95.7로 상승추세였으나 코로나19 발생이후 2020년 3월에는 63.7%로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소비심리지수 역시 2020년 1월 104.2를 기록하였으나 3월에는 78.4까지 급락하였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희석 등, 2020).

국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3월 중순 경에 미국연방준비은행의 선제적 제로금리 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중에는 V자형 또는 U자형의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낙관했으나 4월 초부터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감염자 수를 기록하면서 L자형 또는 I자형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장인석, 2020).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국경 간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위축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품의 생산과 경제활동의 제한 등으로 경기침체의 지속이 예상되며 IMF는 대규모 봉쇄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고하고 전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3.0%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확진자 수가 많고 피해가 크다는 것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기관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비교

구분	주요내용
UNCTAD	-전 세계 수출액 약 500억 달러 감소 예상 (한국: 38억 달러 감소) -중국과의 글로벌가치사슬 연관도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순으로 영향 예상
OECD International Economic Outlook	-코로나19로 글로벌 체인, 관광, 금융, 에너지, 경제심리 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2.9%에서 2.4%로 하향조정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완화로 3.3% 회복예상 -한국경제성장률은 2.3%에서 2.0%로 하향조정, 2021년에는 2.3% 전망
Brookings Institution	-바이러스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감염률 10%, 치사율 2%일 경우: 세계GDP 2조 3,300억 달러 감소 감염률 30%, 치사율 3%일 경우: 세계GDP 9조 1,700억 달러 감소 -전 세계 확산시나리오에서 2020년 한국의 GDP는 1.3~5.8% 감소
JP Morgan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 0.5%, 중국 5.1%, 유로존 -0.1%, 미국-1.9% -미국의 경제성장률: 1/4분기 -4%, 2/4분기 -14%
Fitch Solutions	-코로나19에 따라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대부분 하향 조정 : 미국 1.0% → -3.3%, 한국 0.8%→-0.2%, 중국 3.7%→1.6%

자료: OECD, KIEP, FitchDolution, DongA, 한국경제 (신유원 등, 2020)

### 3.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향 및 정부대응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총 97.6%이다. 매출액 감소비율은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30%에서 50% 감소비율은 28.7%이고 15% 이내 감소는 2.8% 수준이다.

또한 방문객 수도 급감하였으니 방문객 감소가 있었다고 답한 소상공인 비율은 97.7%이며 50% 이상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5.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30%에서 50% 감소가 27.5%, 15%에서 30%감소가 21.3%, 15% 이내 감소가 4.1%를 차지하였다(박희석 등, 2020). 이상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현황

구분	매우 감소	감소	증가	매우 증가	변동 없음
매출액	77.3%	20.3%	0.2%	0.5%	1.8%
방문객	71.2%	26.5%	0.5%	0.3%	1.5%

자료: 코로나19사태 관련 소상공인 2차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0)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불만족 하다는 응답이 48.8%이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29.1%로서 응답 별 상세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코로나19 극복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잘 모르겠음
6.6%	22.5%	29.9%	18.9%	22.1%

자료: 코로나19사태 관련 소상공인 2차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0)

다만 소상공인지원정책 중에서 자금관련 정책이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의 피해 소상공인 지급(50.5%)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신보 특별보증 1,000억의 피해소상공인 지급(32.6%)이었고 필요 지원정책으로는 1순위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대폭확대(55.7%)였으며 2순위가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방안 확대(32.2%)이고 3순위가 피해소상공인 전수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정책(32.0%)으로 응답되었다. 관련 상세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코로나19 관련 만족도가 높은 지원정책과 필요한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은 지원정책	비율(%)	필요 지원정책	비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피해소상공인에게 지급	50.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확대	55.7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 피해소상공인에게 지급	32.6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확대	32.2
피해소상공인 중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 발생 시 만기연장지원	23.7	피해소상공인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정책(피해보상금 등)	32.0
소상공인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 마스크수급 안정화 추진	20.5	특례보증 이자율 추가인하	20.3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3.4% → 2.9% 인하(한시적)	9.4	매장 위생환경 개선비용 지원	16.9
민간 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가치샵시다' 플랫폼 입점	5.6	정부차원의 소상공인 가게이용 홍보	15.9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정부지원 확대	15.0
기타	16.7	중국 수출입 감소에 따른 지원 대책	4.5
		기타	6.3

자료: 코로나19사태 관련 소상공인 2차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0)

#### 4. 현상학 연구방법

현상학 연구는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 따라서 현상학의 기본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인 본질에 대한 기술, 곧 사물의 자연적 특성을 포착하는 것이다.

Van Manen(2016)은 현상학 연구의 특징으로 1) 현상학 연구는 우리가 겪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연구하는 것이며 2) 현실적인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고 3) 현상을 그 현상으로 만드는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며 4) 체험적 의미를 우리가 겪은 대로 기술하는 것이고 5) 체계적, 명시적, 자기 비판적, 상호 주관적인 현상에 대한 인간 과학적 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Creswell, 2007).

이러한 현상학의 철학적 관점으로 Stewart & Mickunas(1990)는 네 가지를 강조한다. 1) 철학의 전통적 과업으로의 복귀: 철학이 과학(만능)주의로 일컬어지는 경험과학에 빠지기 이전의 지혜에 대한 추구라는 철학의 그리스적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 전제가 없는 철학: 현상학의 접근은 분명한 기초 위에 수립되기까지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하며 이를 Husserl은 판단중지(epoche)라고 한다. 3) 의식의 지향성: 의식이 항상 객체를 지향하며 객체의 실재는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의식과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Husserl은 실재는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 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주체-객체 이분법의 거부: 의식의 지향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으로 한 객체의 실재는 한 개인의 경험적 의미 안에서만 의식된다.

현상학의 지향성에 주목하여 Husserl은 현상학 심리학과 초월론 현상학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상학 심리학에서의 지향성은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지각, 기억, 예상하는 것과 같이 의식이 대상을 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며 초월론 현상의 지향성은 우리의 의식내부에 그 대상이나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현상학 연구방법과 수행 절차는 Dukes(1984), Tesch(1990), Giorgi(1985,1994), Polkinghorne(1989), Moustakas(1994)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왔으며 주요단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현상학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현상학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공통된 또는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이며 실천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또는 현상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통된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연구의 관심이 되는 현상을 확인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완전히 기술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가능한 많은 괄호치기를 해야 한다.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 온 개인들로부터 수집되는데 종종 현상학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과 다중적인 면접으로 구성되며 Polkinghorne(1989)는 연구자가 현상을 모두 경험한 5명에서 25명의 개인들과 면접을 권하고 있다. 또한 관찰, 일지, 예술, 시, 음악 같은 다른 형식의 자료들이 수집될 수도 있으며 Van Manen(2016)은 녹음된 대화내용, 공식적으로 작성된 반응, 연극, 영화, 시, 소설과 같이 간접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추가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현상에 대한 경험에 관해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주어지며 두 질문은 특히 경험의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이끌게 될 자료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며 궁극적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두 가지 질문에서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자료 분석은 자료들을 읽어가며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 인용문을 강조하게 된다.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술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기술 곧 구조적 기술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다.

구조적 기술,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로부터 연구자는 본질적, 불변구조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



질'을 제시하는 혼합적 기술을 작성하게 되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며 모든 경험들이 근원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2007). 이상의 주요단계를 요약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현상학 연구단계 재구성

연구주제 설정	팔호치기	자료수집	자료분석	글쓰기
-연구방법의 적합성 검토	-선개념, 선지식, 선 이해 등에 대한 판단중지 또는 팔호치기	-심층/다중면접 -관찰, 일지, 시, 예술, 음악 활용 -간접경험 추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 선정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과 구조적 기술에서 본질을 제시하는 혼합적 기술 작성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상확인		-무엇을 경험 하였는가? -경험에 영향을 준 맥락(상황)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진술을 기반하여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과 구조적 기술 작성	

현상학 연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자료분석방법은 Colaizzi, Giorgi, Spiegelberg, Van Kaam, Van Manen, Benner, Paterson과 Zderad 등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나 대표적으로 Giorgi(1970), Colaizzi(1978), Van Kaam(1969)의 자료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orgi(1970)는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여 연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며 자료 분석방법은 우선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단위를 규명하고 대상자의 언어로 표현된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를 규명한 후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한 중심의미를 도출하고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작성한 후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작성하는 방식과 절차를 취한다.

Colaizzi(1978)는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 분석방법은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을 읽고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에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낸다. 그리고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조직한 후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기술한다.

Van Kaam(1969)은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서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특성을 가지며 전

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한다는 점과 분석한 내용을 주제와 범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Colaizzi의 방법과 유사하나 Colaizzi가 연구 참여자의 표현으로 주제를 구성하는데 반하여 Van Kaam은 Giorgi와 같이 연구자의 정련된 언어로 부주제, 주제, 범주를 기술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료 분석방법은 대상자와 녹음한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 대로를 글로 기록하고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추출되어진 의미 있는 진술에서 부주제, 주제, 범주화 순으로 공통의 속성으로 묶여지도록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며 분류된 범주화를 통해서 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에 대해 기술한다(김분한 등, 1999). 위에서 비교 검토한 학자들의 자료분석 방법은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6〉 Giorgi, Colaizzi, Van Kaam의 자료 분석방법 비교 재구성

구분	Giorgi	Colaizzi	Van Kaam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	1) 중요 진술 선별 2) 주제도출 3) 중심의미 규명 4) 상황적 구조적 기술 5) 일반적 구조적 기술	1) 중요 진술 선별 2) 구성된 의미 3) 주제선정 4) 주제모음 5) 범주화	1) 중요 진술 선별 2) 부주제 도출 3) 주제선정 4) 범주화
특징	-상황적 구조적인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을 자세히 설명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중점	-진술, 주제, 범주 등의 빈도를 제시하는 양적 특성을 포함
유사점 및 차이점	-연구자의 언어	-연구 참여자의 표현	-연구자의 언어
	-개인적 경험 중점	-공통적 속성 중점	-공통적 속성 중점

### III. 연구수행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란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 소상공인들 각자의 체험을 탐구하여 코로나19의 사업적 본질을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현상학 방법을 연구의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조사의 특성을 가지며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 도출에 중점 하는 Van Kaam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중에서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적이고 애매한 표현들은 배제하거나 재구조화하고 연구주제와 연관된 진술 중에서 공통된 속성들을 묶어 부주제

(Subtheme)를 선별한 후 유사한 부주제 들을 재통합하여 주제(theme)를 도출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범주화(Category) 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진술 빈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열한 후 분석과 통합을 수행하여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분석방법과 절차를 취하였다(설진화, 2012).

## 2. 연구과정

###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목적의 적합성,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sup>3)</sup> 사업대표를 대상으로 기업 종류(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수행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차이, 사업지향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녹취와 활용을 동의 받았으며 필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참여자 현황

구분	기업종류	사업채널	업종	근로자수	비고
참여자 1	개인사업	온/오프라인	천연제품	2명	
참여자 2	개인사업	온라인	영어교육	2명	소셜벤처
참여자 3	개인사업	온/오프라인	업사이클링 제품	1명	
참여자 4	법인	오프라인	정리서비스	4명	예비 사회적기업
참여자 5	법인	오프라인	친환경소재	3명	
참여자 6	법인	오프라인	대안교육	4명	사회적 협동조합

### 2) 자료의 수집

자료 수집은 2020년 6월23일부터 7월 3일까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집 되었으며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연구자는 일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10여 년 동안 수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황과 사업조건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해도가 있으며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과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로 사무실을 이용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를 지시함

하여 인당 약 60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면담방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연구주제에 보다 집중하고 기억을 재생하는데 용이하도록 시간경과에 따른 체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인지, 이해, 경험, 피해, 대응, 전망 순의 반 구조화된 질문내용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다만 연구자가 응답을 유도하거나 의도적인 암시를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정보와 많은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녹음 내용은 전사 후 분석을 수행하였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재확인을 거쳐 정리되었다.

#### IV. 연구결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체험에 대해 Van Kaam의 현상학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49개의 부주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생활방식에서의 적응(12), 언론과 협력(11), 코로나19의 피해지원(11), 긍정적 전망(6), 공식적 정보의 제공(6), 부정적 우려에 대한 대응(3) 순으로 이루어진 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가적 대응 필요(28), 전환적인 환경(12), 사업적 변화 필요(9)의 범주 순으로 구성 및 분류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체험

범주 (Categories)	주제(Theme)	세부주제(Subthemes)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28)	언론과 협력(11)	안일한 초기대응(6)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인식(5)
	코로나19의 피해지원(11)	사업 활동의 위축(6)
		온, 오프라인 매출 감소(5)
	공식적 정보의 제공(6)	부정확한 코로나19 정보(3)
		코로나19를 체험적 개념으로 이해(3)
전환적인 환경(12)	변화된 생활방식에서의 적응(12)	코로나19의 장기화 지속(6)
		위생, 보건 등 현 상황의 일상화(6)
사업적 변화의 필요(9)	긍정적 전망(6)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3)
		사업성장의 기회(3)
	부정적 우려에 대한 대응(3)	장기지속에 대한 대응필요 (3)

## 1.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

연구 참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적 본질은 첫 번째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28)이 필요한 현상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해당 범주에는 언론과 협력(11), 코로나19의 피해지원(11), 공식적 정보의 제공(6)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팬데믹 상황은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정부는 팬데믹 발생 시 초기감지를 통해 초기부터 언론과의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하여 정확한 질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해야 하며 매출감소와 사업 활동의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 1) 언론과 협력

우선 언론과 협력(11)에 대한 주제는 단일한 초기대응(6)과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인식(5) 등의 부주제 순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진술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코로나19의 대한 초기대응은 일상적인 질병이나 곧 사라질 단순한 질병 정도로 인식하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의 권고사항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처음에는 또 중국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왔구나, 근데 금방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죠”  
“대수롭지 않은 전염병으로 메르스처럼 잠깐 성행하고 사라질꺼라 생각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했으니 쉽게 잡힐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사실 신종플루 같은 간단히 지나가는 전염병 정도로 생각하고 초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부규제도 무시했거든요”

초기대응 문제는 언론매체 및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를 인식한 경험(5)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언론과 방송에서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흥미 정도의 이슈 성 소재로 다루거나 정확한 위험성이나 확대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관계된다.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죠 사업에 영향을 줄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언론에서 보고 알았는데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했는데 심각한 것 같지도 않고 대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 2) 코로나19의 피해지원

코로나19의 피해지원(11)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활동의 위축(6)과 온, 오프라인 매출의 감소(5) 순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아직 매출발생 전인 신규법인 상황을 감안하면 매출감소도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경험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사업 활동의 위축(6)은 대면접촉의 경계, 소비감소, 선택적 활동자제 등과 관계가 있다.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돼요 그리고 거래처 영업미팅 등이 아무래도 어렵죠”*

*“소득이 줄어드니 저희 같은 의류제품은 구매를 줄여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모집이 안 되니..”*

온, 오프라인 매출의 감소(5)는 오프라인 고객의 급감,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전환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판매는 단체 사은품이 끊기니 80%, 교육수업도 30% 감소했습니다”*

*“온라인이라 처음에는 오히려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니 수익이 20% 정도는 줄었죠”*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만 하니 코로나 이후 매출이 아예 없죠”*

*“5월 이후는 매출이 60% 감소해서 이젠 운영비 충당도 어려워요”*

### 3) 공식적 정보의 제공

공식적 정보 제공(6)의 주제는 부정확한 코로나19의 정보(3), 코로나19를 체험적으로 이해(3) 순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코로나19의 정보(3)는 초기에 공식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정부와 언론의 역할 부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기심에 정보를 찾아보니 중국실험을 통해 생성된 바이러스라고 하고..”*

*“뉴스 등을 통해 위험성은 인식하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심히 필요한 바이러스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독감보다 조금 센 바이러스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를 체험적으로 이해(3)하는 경우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일 수 있다.

*“코로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계속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 코로나죠”*

*“개인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질병 아닌가요”*

## 2. 전환적인 환경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이전과 구분되는 전환적인 환경(12)으로서 사업적 본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된 생활방식에의 적응을 사업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파급력과 장기화에 따른 팬데믹에 대한 인식변화로 마스크 착용 등 보건환경의 일상화, 비대면 사업방식의 불가피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 1) 변화된 생활방식에의 적응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생활방식에의 적응(12) 범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지속(6)과 위생, 보건 등 현 상황의 일상화(6)의 부주제를 경험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지속(6)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사태 해결방안이 부재하고 그나마 기대하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역시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것과 연관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경험이 충격적인 것으로 아직 여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변종들로 인해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냥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걸로 보이지 않고 쪽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한 번에 치료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속 될 것 같아요”*

위생, 보건 등 현 상황의 일상화(6)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지속(6)과도 연관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코로나19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내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코로나가 해결되더라도 군집장소 회피, 마스크 착용은 계속할 것 같아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계속적으로 생활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이전과 다르죠 우선 사람들 모여 있는 자체가 꺼려질 겁니다”*

## 3. 사업적 변화의 필요

코로나19를 체험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적 변화가 필요(8)한 현상으로서 코로나19의 사업적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 전망(3)과 부정적 우려에 대한 대응(2)의 주제가 공존한다. 이는 코로나19 등 팬데믹에 대한 개인이나 정부의 대응은 일괄적인 것이 아닌 업종과 사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함을 지시한다.

### 1) 긍정적 전망

긍정적 전망(6)에 대한 주제에는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기대(3)와 사업성장의 기회(3)의 부주제가 포함된다.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기대(3)는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의

학적 대응방식이 현재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반 한다.

*“백신 개발 시까지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백신이 개발되면)해결은 되겠지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불안은 덜 하겠죠”*

*“백신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나아지겠죠”*

한편 연구 참여자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장기화 지속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업성장의 기회(3)로 체험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으며 이는 사업적인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온라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 (정리서비스를 하는) 우리 같은 사업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독 서비스와 연계하면 기회가 될 듯해요”*

*“온라인 학습이 일반화되면 체험학습에 강점이 있는 우리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수업은 저희도 온라인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에 집중할 생각이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대응

반면 장기지속에 대한 부정적 우려에서 대응의 필요성(3)을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나름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다소 소극적인 한계가 있다.

*“1:1 수업을 확대해 볼까도 생각하지만 걱정은 되죠”*

*“온라인 경쟁이 심화되면 차별화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지만 별다른 대응계획은 없어요”*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서 2020년 6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6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Van Kaam의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적인 체험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 전환적인 환경, 사업적 변화의 필요 순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이론적 기반의 고찰을 종합하여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코로나19 나아가 팬데믹의 사업적인 본질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근거한 향후 소상공인정책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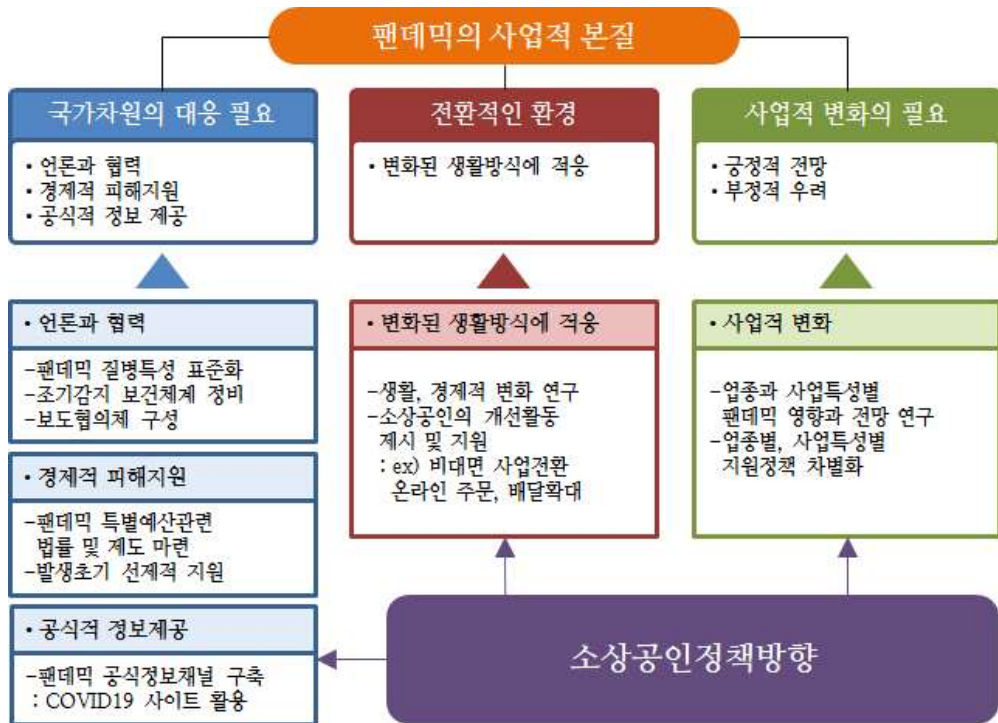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소상공인들에게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주도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이례적 상황으로 인식되며 연구 결과에서는 언론과 협력, 피해지원, 공식적 정보제공이 정부에 요구되는 현상으로 체험되었다. 우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통상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인지하게 되고 해당 질병에 대한 언론 내용과 태도가 초기의 대응방식을 결정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언론과의 능동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질병특성을 표준화하고 이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팬데믹이 의심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 및 방송과의 보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된 기준과 방식으로 보도함으로써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사회적 동참을 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팬데믹은 산업 전반의 활동침체, 매출 및 수익감소 등으로 확대되므로 발생 초기단계부터 강제적인 소비 진작과 예외적인 경제지원 등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팬데믹 질병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는 효과적인 상황대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 및 유통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의 COVID-19사이트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는 채널구축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팬데믹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환적인 환경을 의미하고 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생활환경에의 적응을 요구한다. 연구에 참여한 소상공인 모두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위생, 보건환경의 지속을 예견하고 있고 향후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점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활환경 및 경제상황의 변화 등이 사업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비대면 사업방식 전환, 온라인 주문과 배달서비스 강화 등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사업적 준비와 필요 활동을 제시 및 지원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경험한 팬데믹은 사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 체험되었으며 다만 소상공인에 따라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우려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적 변화는 팬데믹에 의한 전환적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절실히 질 수 있으며 업종과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적 변화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업종과 사업특성에 따른 팬데믹의 영향과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구분 없는 단일한 정책을 탈피하여 업종별 또는 사업특성별 지원정책을 차별화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여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소상공인 관점에서 팬데믹의 사업적 본질과 소상공인정책의 대응방향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있어 코로나19의 사업 체험을 현상학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시도하였으며 해당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나아가 팬데믹의 사업적 본질과 소상공인정책에서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연구 기간과 자원의 제약 등으로 질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상응하는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 즉 분석과정과 결과산출에서의 동료 연구자 등에 의한 검증작업이 부족하였고 요식업, 생활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의 체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행되고 분석된 연구 결과로서 일정 수준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서 지적된 본 연구의 한계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의 소상공인들의 체험 등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희영(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 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2: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 박성원, 김유빈(2020),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 **동향과 전망**, 109, 35-67.
- 박희석, 반정화, 정현철, 김수진(2020),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정책리포트**, 1-32.
- 설진화(2012), 지적장애 형제에 대한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들의 경험, **재활복지**, 16, 91-118.
- 신유원, 최광식, 신민선, 이주화(2020),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2020년 1/4분기 국내 보건산업 수출 현황과 시사점, **보건사업브리프**, 299, 1-28
- 장인석(2020),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경제상황진단과 대응, **도시정보**, 18-20.
- 주원(2020), 코로나발 경제충격이 밀려오고 있다, **기술과 혁신**, 441, 08-10.
- 최나실(2020).“팬데믹 선언 나오자마자. 각국봉쇄 초강경조치 쏟아져”, **한국일보**, 3월12일
- Creswell, J. W. (2007),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외(역), 학지사.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Giorgi, A. (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1994),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certa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2), 190-220.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Polkinghorn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pp. 41-60), Springer, Boston, MA.
- Tesch, R. (1990),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types and software*, Routledge Falmer.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Doubleday.
- Van Manen, M. (2016),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2nd. ed), Routledge.

논문접수일	: 2020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